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1주 】

|               |                   |
|---------------|-------------------|
| 전 주 .....     | 반주자               |
| 임재의 기원 .....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
| 예배로의 부름 .....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전에 밝힌 대림절 촛불처럼 밝고 따스한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밝혀주십시오. 그 빛으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교만과 우울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참된 기쁨과 행복의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 대림절기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여러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입장은 전혀 바꾸지 않으며 상대방의 변화만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겉으로는 ‘세상을 위한다’하면서도 속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는 위선을 꾸짖어주십시오. 작은 아궁이에서 제 몸을 불살라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연탄에게서 바른 삶의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눅2:14 ..... 인도자

♠ 교 독 문 ..... 115. 구주 강림(1)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I. 박소진 선생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104. 곧 오소서 임마누엘 ..... 다함께

성경봉독 ..... I. 마2:9-11 ..... 최보미 학생

..... II. 사9:2-7 ..... 권미정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왕을 모실 마음 ..... 김재홍 목사

..... II. 주님의 열심이 이루실 것이다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 찬 송 ..... 84(통96).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 다함께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참된 기쁨과 행복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다 함 께 : 할렐루야,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역사의 어둠을 헤쳐나가며 공평과 정의의 길을 만드는 주님을 뒤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                     |              |
|---------------------|--------------|
| <b>주일 오후 집회</b>     | <b>수요 집회</b> |
| 신약 성서의 맥잡기 / 김기석 목사 | 12월 기도의 밤    |
| 기도 : 하정석 집사         | 인도 : 김재흥 목사  |

|                      |           |           |             |
|----------------------|-----------|-----------|-------------|
| <b>다음 주<br/>예배위원</b> | <b>설교</b> | <b>기도</b> | <b>성경봉독</b> |
|                      | 김재흥 목사    | 장성호 선생    | 전수정 학생      |
|                      | 김기석 목사    | 김인걸 장로    | 오자영 집사      |

|            |      |                         |  |  |  |  |  |
|------------|------|-------------------------|--|--|--|--|--|
| <b>11월</b> | 영접위원 | 한완식 최철수 박석희 박애순 조항미 박성실 |  |  |  |  |  |
|            | 헌금위원 | 방문성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  |  |  |  |

## 지탱해 주는 것

인생의 신비 중 하나는 가끔 우리는 직접 마주대할 때보다 서로를 기억 때 더욱 가깝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서로 직접 대면해서 친밀함을 나눌 수 있기도 때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없는 법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함께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항상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떨어지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친밀감이 커지는 것을 점점 크게 느끼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서로 보지 않고 있을 때 기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는 서로의 다른 모습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서로의 내면 중심을 더 잘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혼에 닿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언제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되게 하며 또 선택적인 지각을 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기억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기억은 분명하게 해주고 순화해 주며, 초점을 맞추게 하며 숨겨진 은사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을 떠난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가 부모를 기억할 때, 남편과 아내가 오래 떨어져 있다가 서로를 생각할 때 대개 가장 좋은 것들이 기억에 떠오르면서 상대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불러 내 영적인 연합이라는 새로운 친밀감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함께 하며, 서로를 새롭게 보며, 새롭게 발견한 영적인 삶을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일으키는 사랑스러운 기억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만남은 언제나 다시금 더욱더 순화된 헤어짐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적인 기억과 연결된 만남과 헤어짐의 계속적인 상호 관계성은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순화하고, 깊게 하며 지속하는 한 통로입니다.

이런 지탱해 주는 힘에 대한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

님의 모습에서 가장 신비롭게 나타납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억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시고 지탱해 주시는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 (요16:7,13)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즉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목격한 것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변화산에서 그분을 뵈었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못했습니다. 성령, 그분의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들이 비록 보고 듣고 냄새를 맡았고 만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오직 그분이 떠나간 후에야 그분의 진리의 영이 자신의 모습들 제자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분이 떠남으로 새롭고 더욱더 친밀한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임재가 고난 가운데서 제자들을 돌보고 지탱해 주었으며 그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큰 신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뿐만 아니라 그가 떠나가심으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분을 우리의 양식과 음료로 부를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을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이 사실이 디트리히 본회퍼 같은 사람들의 생애에서 분명히 나타났으며, 알프레드 델프는 나찌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본회퍼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막15:34) ...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은 과거의 구원사건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기억, 즉 현재 여기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세워 주면서 일상의 많은 위기 가운데서 뿌리내린 참 존재 의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주는 기억입니다.

- 헨리 나우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중에서

## ■ 마/음/으/호/워/는/글

# 아, 그 시절 그림구나

내가 어릴 때 다니던 작은 학교  
어느 먼 소재지 공립보통학교

교장 선생님 김 선생님 일본 선생님 한 분

한 반 학생 육십 명  
여학생 십여 명 짓곳은 남학생 사십여 명  
공부시간 장난치는 남학생  
암전하고 다소곳한 여학생 늘 칭찬

교장 선생님 김 선생님 항시 뵙고 싶죠  
육 교시 끝나고 상급학교 준비에 늦은 시간  
교장 선생님 댁에서 자고 내일 공부하라시든  
다정하시고 자상하시던 김 선생님 뵙고 싶죠

학교 가고오던 시골길 수리조합 뚝 길  
벼 낱가리 조짚 낱가리 눈에 선하오

아아! 그때 그 어린 시절 그림구나

- 김춘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흥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                  |             |
|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                  |             |
|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                  |             |
|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                  |             |
| 지휘 : 윤주원 안홍숙                       |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             |
|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 도서관장 : 박혜경       |             |

## ◇ 헌금영수기 ◇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곽상준 최경미 김근종 정옥영 박규석 박경선 박병구  
 김정애 배근수 김금순 이예정 이한림 김명희 임승동 백혜숙 장성호  
 정복순 최종원 허호범 박성실 김정애 박효선 장원호 박성희

### 월정헌금:

박준규 서지영 박준희 이기분 윤주원 최윤선 이봉배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배부례 하정석 이명희 정현숙 문홍일 이현순 황의일

### 감사헌금:

김준호 곽혜자 강순배 박창운 허정윤 전성오 김윤숙 이재문 한계섭  
 무명7

### 녹색꿈 헌금:

한상의 정영선 김재홍 최희영 임승동 무명2

### 생일감사헌금:

김준우

| 속명   | 인도자 | 속장  | 모인곳 | 다음장소 |
|------|-----|-----|-----|------|
| 예루살렘 | 장혜숙 | 박성실 | 장혜숙 | 김정섭  |
| 베들레헴 | 노순옥 | 정경례 | 노순옥 | 정경례  |
| 안디옥  | 임정자 | 임정자 | 임정자 | 정복순  |
| 가나안  | 문영혜 | 이명희 | 박경원 | 문영혜  |
| 갈릴리  | 안정숙 | 진정숙 | 박애순 | 박옥순  |
| 베다니  | 박홍재 | 곽권희 | 오정숙 | 곽권희  |
| 시온   | 박효선 | 허정윤 | 홍복선 | 김정애  |
| 엠마오  | 최숙화 | 권미정 | 심   | 최숙화  |
| 에베소  | 이순정 | 김금순 | 강순배 | 유영남  |
| 빌립보  | 이형숙 | 권미숙 | 이형숙 | 권명자  |
| 가버나움 | 안홍숙 | 오현정 | 정현주 | 박찬정  |
| 나사렛  | 정영선 | 백혜숙 | 정영선 | 백혜숙  |
| 갈라디아 | 유경순 | 김명희 | 박옥식 | 김수진  |
| 고린도  | 이영란 | 이영란 | 배삼순 | 이증자  |
| 다메섹  | 박혜경 | 최영혜 | 최영혜 | 백성래  |

##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대림절** : 이번 주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님 맞을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며 사십시오.
2. **교사교육** : 4분기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오늘 오후3시부터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3. **기도의 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12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4. **보고서** : 당회 준비를 위하여 각 부서와 선교회의 2009년 활동 보고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세례입교교육신청** : 이번 성탄절에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교육 일정을 상의하기 바랍니다.
6. **기획위원회** : 오늘 오후 3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7. **당회** : 다음 주일 오후 2시 친교실에서 2009년도 당회가 열립니다. 당회 참석대상자는 입교인 전원입니다.
8. **김장 축제** : 12월 3일은 청파 김장 축제의 날입니다. 신앙공동체의 애찬을 위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다립니다. 즐거운 친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9. **장례** : 김춘려 장로님께서 지난 24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10. **쌀** : 단비교회에서 농사지은 쌀을 판매합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11. **신앙실천** : 지난 25일은 '아무것도 안 사는 날'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바랍니다.

\* 떡 : 이광용 집사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다음 주 : 가버나움 속 )

\* 설거지 봉사 : 이준하 오재환 (다음 주 : 김기성 이은정)

##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 년 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